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기독교 세계관적 차별성 탐색*

A Study on Christian Worldview's Differentiation in the Attitude to the Disabled

김기흥 (Ki-Heung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main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 correct view of the disabled based on the Christian worldview of creation, fall, redemption, and completion, in which churches and Christians are clearly distinguished from the world. To this end, we first examine the general social attitude toward the disabled through an overview of history and recent preceding studies. Next, we examine the records related to the disabled in the Bible, and examine the Christian attitude toward the disabled through previous studie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 Christian worldview of the disabled are as follows. First, the modern church and Christians must establish a firm Christian worldview that is clearly distinct from the world. Second, all human beings are valuable, meaningful and dignified being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Third, the essential identity and sense of mission of the church and of Christians must be recognised. Fourth, the active will of improvement and practical efforts such as reflective Bible interpretation and sermons of theologians and pastors is an important foundation.

Key words: Christian Worldview, Persons with Disabilities, Bible, Attitude, Church

* 2021년 11월 04일 접수, 2022년 1월 28일 최종수정, 1월 28일 게재확정
본 연구는 2021년도 부산교육대학교 연구역량 지원과제로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 부산교육대학교(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유아교육과 교수, 부산 연제구 교대로 24, koelnkim@bnu.ac.kr

I. 서론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세계인구 약 70억 중 10억 명(약 15%)이 노인성, 만성건강 문제로 장애인이며, 청각, 시각장애, 정신질환, 지체장애 순으로 많다(<https://www.cbmswiss.ch/de>). 또 2020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260만 명의 등록 장애인(인구의 약 5.1%)이 있고, 지체장애(45.8%), 청각장애(15%), 시각장애(9.6%), 뇌병변(9.5%)의 비율이 가장 높다(<http://www.mohw.go.kr>). 또 교육부(2021)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총 98,154명이며, 지적장애 51,788명(52.8%), 자폐성장애 15, 215명(15.5%), 지체장애 9,695명(9.9%)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태도(attitude)’란 ‘사회적인 특정대상에 긍정적, 부정적인 평가나 감정적인 자세 및 행동적 경향에 있어서 안정적 체계’를 뜻한다. 이는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며, 상호작용 하는 인지적(지식, 신념), 정의적(감정, 느낌), 행동적(수용, 거부) 요소로 구성된다. 또 태도는 교육이나 타인과의 상호작용, 개인적 경험, 대중매체 등 주변의 학습과정에 의해 통합적으로 형성되고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 긍정적 태도와 긍정적 행동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태도와 외현적 행동 간의 일관성은 높다고 한다(한국심리학회, 2006: 405-408; Fischer & Wiswede, 2002: 219).

태도이론은 장애인과 관련된 사회적 반응에서도 중요한 의미와 기능이 있다. 즉 장애인에 대한 객관적, 합리적 지식과 신념, 긍정적 감정, 수용적 행동 준비성의 태도요소는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적 통합 등 정책수립과 실천에 기본 요소이다. 그 의미는 국제사회의 장애 개념에서도 읽을 수 있다. 장애(인)는 개인의 의학적, 기능적 면을 강조하는 개인적 모형과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구조적 문제를 강조하며 환경 변화를 촉구하는 사회적 모형이 있다(이선우, 2009: 22-29). 1980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장애분류(ICIDH-1)는 의료적, 개인적 모형을 중심으로 장애를 세 요소로 나눈다. 손상(impairment)은 신체적 차원의 유전, 사고, 질병으로 심리적, 생리적, 해부학적 구조, 기능에서 손실, 비정상을 말한다. 불능(disability)은 손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일상생활의 기능제한과 결여이다. 또 사회적 불리(handicap)는 손상과 불능이 사회적 차원인 직업, 교육, 문화 등에서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말한다. 1997년에는 개인적 모형보다는 사회적 모형이 강조된 ICIDH-2가 제시되는데, 이는 손상, 불능, 사회적 불리의 단선적인 관점보다는 상호관련성이 제기됐다. 즉 장애를 손상, 불능, 사회적 불리와 함께 개인 내부적 요인과 외부 환경적 요인 등 복합적 현상으로 보았다(김기흥, 2020: 24). 2001년 세계보건회의(WHA)는 통일된 정의로 기능, 장애와 건강에 대한 국제 분류(ICF)에서 ICIDH-2의 내용은 유지하면서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통합하고자 했다. 장애인 질병의 조건은 환경적 요소와 개별적 요소로 구성된 신체적 기능과 구조, 활동과 참여 등 요소 간의

상호작용으로 보았다(이선우, 2009: 41; 전지혜, 2014: 245). 사회적 환경요인의 강조는 장애가 개인적 심신 손상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건축물 구조 등 환경적 장벽(barrier)으로도 발생하므로, 사회적 태도와 역할의 의미를 알 수 있다. 또 2006년 장애인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한 ‘장애인권리협약(CRPD)’도 의학과 개인적 입장에서 인권적 차원으로의 사회적 태도 변화를 이끈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 할 것이다.

2019년 5월 5일 ‘장애인 평등을 위한 유럽 시위의 날(European Protest Day for Equality of People with Disabilities)’에서 독일 시민당(SPD) 연방의원 마스트(Mast)는 ‘통합(Inclusion)은 머리(생각)에서 시작 된다’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그녀는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가 장애로 곤란하지만, 사회적 태도가 장애인의 재활이나 통합에 오히려 큰 장벽으로 보았다(<https://www.spd-gengenbach.de>).

역사 속에서 장애인은 늘 존재했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각 시대, 국가의 정책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김기홍, 2020: 165-201). 고대는 멸절의 시대로 당시 인간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자산으로의 가치에 따라 생사가 결정되었는데, 허약아, 장애아는 유기, 살해, 매매의 대상이었다(김기홍, 2020: 171-172; Beckerath, 1975: 195-197).

중세에도 고대처럼 장애인은 사회의 부정적 태도와 처우의 대상이고, 문학과 예술작품에도 의존적 존재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기독교의 이웃사랑의 교리를 바탕으로 장애인이 보호나 자선의 대상으로 바뀌어 교회, 수도원을 중심으로 구제활동도 시작되었다. 13세기 이탈리아 신학자 아퀴나스(Aquinas)는 자선교리에서 공동의 복지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선행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하였다(Lena, 2008: 55-57).

계몽주의 사상은 중세의 종교나 형이상학적인 입장에서 질병과 장애 이해를 자연과학과 의학적 기초에서 합리적, 과학적으로 접근하도록 했다. 또 의사, 교육자, 성직자를 중심으로 특수학교 등 복지시설이 유럽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산업화 시대는 도시화로 전통적 확대가족이 해체되고 장애인은 대부분 열악한 환경의 특별시설에 수용되었다. 이들은 사회적인 ‘문제거리’로 인식되었고, 많은 장애인들은 예방, 원인규명 및 치료를 위한 실험대상이 되기도 했다(Sierck, 2017: 49).

20세기 초 경제적 호황은 장애인을 노동시장에 통합하기 위한 계기가 되었는데, 이에 기독교계 장애인 복지 관련 시설들도 의료 활동에 이어 직업재활에까지 관심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장애아에게 처음으로 공교육권이 있었지만, 이들은 분리된 시설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다. 특히 독일 나치시대(1933-1945)의 특수교육과 장애인 복지는 고대에 이어 ‘제2의 멸절 시대’를 맞이했다. 독재 정권은 19세기 다윈(Darwin), 멘델(Mendel), 갈톤(Galton)의 생태계 법칙을 인간사회에 사회적 다윈주의(social darwinism)와 인종주의(racism) 이념으로 치환하였다. 당시 일부 신·구 교회가 저항했지

만, 치료, 노동, 학습이 불가능 수많은 장애인, 정신질환자들은 ‘살 가치가 없는 목숨’으로 인식되어 국가의 강제적 불임시술과 안락사 정책으로 희생되었다(김기홍, 2020: 182-184).

2차 대전 후에는 북유럽의 ‘정상화 원리(principle of normalization)’나 ‘탈수용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운동으로 장애인에 대한 분리, 차별적인 사회적 행태에 강한 비판이 일었다. 이는 통합교육의 기초가 되었고, 최근 통합은 인권의 차원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장애인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멸절-자선·보호-교육적 배제-분리교육-통합교육 등의 다양한 사회적 의미를 지닌 존재였다(김기홍, 2020: 84-86).

한편 이러한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 면과 실천면에서 양면성을 가진다. 즉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동시에 ‘신의 형벌’, ‘귀신들린 자’, ‘악마가 바귀놓은 못 생긴 아이(changeling)’ 등 부정적 태도도 있다. 5세기 가톨릭 주교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는 언어신수설(言語神授說)을 주장하며, 로마서 10장 14절의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에 따라 청각 장애인은 듣고 이해하지 못하므로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후에 청각장애인의 수어를 보고 이들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루터(Luther)나 켈빈(Calvin)의 경우도 추형(醜形)과 기형아를 사탄이 요람에 넣은 ‘영혼 없는 고기 덩어리(chunks of meat)’라고 익사시킬 것을 권했다. 이후 많은 장애인들은 마녀재판으로 화형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건강은 신의 축복이지만 질병과 장애는 죄의 결과로 본다거나 장애인은 귀신이 들렸다고 여기는 등 전통적인 여러 사상들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 형성에 작용하였다(Lane, 1988: 55-60).

우리나라도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가 배타적, 부정적인 면이 매우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몇 년 전 서울의 장애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호소하는 일이 있었다. 또 전라북도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장애인 단체는 건물을 이전하여 거주와 이전의 자유권보장을 통해 안전한 공간에서 주민과 함께 살기를 원했다. 이에 인근주민들은 부동산 가격하락과 원룸 공실 발생 등을 우려하며 이를 반대하며 갈등이 발생하였다(<https://news.joins.com>: <https://www.newspim.com>).

사실 현대 기독교회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무관심, 편견, 거부 등의 반응들을 보인다. 예를 들어, 장애인 교회나 장애인 부서가 설치·운영되는 교회의 비율은 우리나라의 약 5만여 개의 교회 중에 약 0.5%정도이다(이희철, 2009; 박명우, 2012: 36). 또 교회 내 비장애인 교인에 비해 장애 교인의 수가 매우 적고, 장애인 편의시설의 구비 환경도 열악함을 보더라도 기독교계 내의 장애인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쉽게 알 수 있다(박혜전, 김정임, 조영길, 2012: 98-99).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인간존재의 본질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세계관(worldview)에서 출발한다. 세계관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과 자신을 포함한 주변 세계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의 기본이 되는 전체의 틀’을 말한다(전광식, 1998: 17-40). 이런 관점에서 특히 기독교 세계관적 장애인관은 특수교육, 장애인 복지 역사에서 인간이해의 획기적 변화를 구현했고, 구교의 까리타스(caritas)나 신교의 디아코니아(diakonia)등을 통해 복지제도의 정립에 공헌했다(Mattner, 2000: 39-42). 하지만 오늘날 교회나 기독교인들조차도 창조-타락-구속-완성을 주축으로 하는 기독교 세계관적 정체성과 사명감을 등한시한 채 왜곡된 시대정신에 편승한다면, 장애인은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의 주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박혜전, 김정임, 조영길, 2012: 99; 김기홍, 2020: 33; 김용득, 2007: 85).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역사 속에서 사회적으로 부정적 장애인관에 영향을 준 주요 사건이나 사상을 개관한다. 또 장애인에 대한 일반 사회의 태도를 개관하기 위해 관련된 최근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이어서 성경 속에서 장애 관련 기록을 알아보고, 교회 내 그리스도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선행 연구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성찰적 입장에서 기독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는 엄연히 구별된 기독교 세계관적 장애인관을 정립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두는 바이다.

II.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인 태도 개관

1. 역사 속에서 살펴본 부정적 장애인관 형성의 주요 요인

(1) 고대에서 19세기까지

고대 그리스의 인간관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형성 과정에서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친 시대이다. 도시국가(polis)인 고대 그리스는 국가 우선주의에 따라 개인은 인격적 존재이기보다는 국가의 자산으로 보아 자산의 가치가 없는 장애인은 ‘식충이’, ‘해충’으로 분류되어 소위 안락사(euthanasia)의 대상이었다. 특히 스파르타는 이상적 인간상을 ‘군인상(軍人像)’으로 정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매우 강조했다. 게다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히포크라테스조차도 장애아 양육과 치료를 적극 반대했는데, 이는 당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지나친 사회적 편견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신체적으로 불완전하면 정신적, 도덕적으로도 결함이 있다고 보았고, 또 이들은 병역의무나 정치, 경제 활동에 참여도 불가능하다고 이해했다. 플라톤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위협적이고, 더 이상 이성과 자율적 도덕 행위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안락사를 지지하였다. 또한 로

마시대는 생존이 허락된 장애인들을 경제적, 유희의 도구로 노예시장에 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아테네인들은 미(美)와 선(善)의 조화를 갈망하며 외모를 매우 중시하여 ‘아름다운 것은 선한 것이다’라는 왜곡된 인간관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는 기형아나 장애인에 대한 강한 사회적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Mattner, 2000: 18-20).

또한 17세기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베이컨(Bacon)도 고통 중의 사람에게 고통을 덜어주는 안락사가 의사의 의무고, 이것은 침대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에 비해 훨씬 더 인간적이고 사회적 인 행위로 여겼다. 이는 19세기 말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요스트(Jost)가 1895년 ‘죽음의 권리(The right to death)’ 발표 후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인간의 ‘삶의 가치’로 이어져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그는 인간 삶의 가치를 두 요소로 보는데, 하나는 당사자가 가진 개인적 기쁨과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 삶의 사회적 유익과 손해의 총합 관계이다. 지체장애나 정신질환자들이 고통이 더 많고, 사회에 무용한 존재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삶이므로 안락사(조력자살)의 합법화를 찬성했다(Benzenhoefer, 1998: 198-201).

(2) 20세기 이후

장애인에 대한 요스트의 인간관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법학자 빈딩(Binding)과 신경정신과의사 호헤(Hoche)의 1920년 논문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의 멸절 허용(The release of the destruction of life unworthy of life)’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제2의 멸절 시기’인 나치정권의 장애인 멸절정책의 이념적 지침서였다. 또한 히틀러는 다윈(Darwin), 멘델(Mendel), 갈톤(Galton) 등의 진화론자와 유전학자들의 생태계 법칙을 여과 없이 인간사회에 적용하여 인종주의(racism)와 사회적 다윈주의(social darwinism)를 정치이념으로 삼았다. 이에 수많은 장애인, 정신질환자들이 노동, 학습,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살 가치가 없는 목숨’으로, 또 유대인, 슬라브족 등은 멸절시켜야 할 ‘열등한 인종’으로 낙인이 찍혀 국가주도의 대학살이 자행되었다(김기흥, 2020: 184-190; Benzenhoefer, 2009: 55-59).

한편 20세기 동물권운동으로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높인 공리주의 윤리학자 싱어(Singer)의 인간이해, 특히 장애인의 존재의미, 가치와 관련된 인간관도 매우 위협적이었다. 그는 사람을 인격체인 인간(person)과 종(種)인 인간(homo sapiens)으로 구분했다. 즉 전자는 자의식과 자율성을 가진 비장애인이며, 후자는 코마상태 환자, 지적장애의 신생아, 태아 등 소위 비인격체, 생명권이 없는 것으로 보는 ‘단순한 존재’였다. 싱어는 1980년대부터 장애아 등에 대한 낙태, 안락사의 합법화를 주장했는데, 어떤 형태든 삶의 쾌락과 최소한 수준의 자의식도 없고, 육체적 고통만 있는 삶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고통스런 삶보다는 낙태나 안락사를 통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오히려

도덕적으로 나쁜 행위가 아니라 주장했다(Maeser, 2008: 20-26).

21세기에 와서 안락사 등 생명윤리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인간의 존재 의미, 가치에 대한 논란과 안락사 합법화 요구는 국제적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그 한 예로, 2018년 호주의 구달(Goodall, 당시 104세)박사는 난치성 질병이 없음에도 더 이상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여겨 스위스에서 조력자살(assisted suicide)을 통하여 사망했다. 올해 12월 오스트리아는 연방정부가 발의한 조력자살 합법화 법안에 의회가 합의하여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룩셈부르크, 스페인 등에 이어 유럽의 여섯 번째 국가가 되었다. 이 조력자살은 의사 2명으로부터 조력 자살 의지가 본인의 결정임을 증명해야 하고, 또 실행 전 12주간의 숙려기간이 주어진다. 다만 환자의 고통이 극심하거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2주로 단축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조력자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밖에 영국, 독일, 프랑스도 조력 자살 허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 심지어 스위스에서는 최근 무기수도 안락사를 요구하며 그 대상 범위에 대한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https://news.mt.co.kr>; 김기흥, 2021: 129-130).

더군다나 미래사회는 지식정보의 팽창을 통하여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지식정보의 영향력은 결국 앞으로도 사회는 더 유능한 사람만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반면에 사회적 기대나 가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장애인 등은 예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경제성, 생산성, 합리성이라는 기준에 의해 그들의 존재 가치와 의미는 계속해서 평가 절하될 위험성에 처해있다. 또한 2000년 8월 미국 칼럼니스트 새파이어(Safire)는 '뉴욕 타임스'에 외모지상주의를 의미하는 루키즘(Lookism)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는 외모가 개인의 우열과 성패를 좌우한다고 믿고 지나치게 외모에 집착하는 새로운 형태의 차별주의를 의미한다. 외모지상주의적 인간관 역시 장애인들에게는 부정적 태도 형성에 주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2013년 1월 영국의 시사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나라를 인구 대비 성형수술이 가장 많은 나라로 발표하기도 했다(서재복 외, 2016: 100-102: <https://100.daum.net>).

이처럼 오랜 역사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게 한 사건이나 사상의 핵심은 예나 지금이나 결국은 비생산적, 비경제적 또는 비합리적인 무능한 삶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소위 '무기력·무능력한 존재=무의미·무가치한 삶=죽음'이라는 인간관과 함께 지나친 건강·외모지상주의적 사고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할 것이다.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관련 선행 연구 고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개괄적인 고찰을 위해 주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에 국내 데이터베이스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와 KISS(한국학술정보원)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태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등 핵심어로 검색했다. 최근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조망하기 위해 2000년 이후에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제목이나 내용을 살펴본 후에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 결과 중 중복적인 논문을 제외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총 16편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최종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특수교육, 사회복지, 의료 분야에서 대학생을 비롯하여 일반인, 교사와 장애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먼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태도 조사에서 ‘현대사회와 장애인의 이해’나 ‘장애아동의 이해’라는 교양과목 수강 대학생과 비수강대학생 그룹간의 비교에서 전체적으로 수강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양적, 질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또 수강한 학생들은 수강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여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의 증가, 장애인 접촉 시 긴장, 불안, 창피함 등 정서적 완화, 사회적 거부감의 감소, 장애인 사회통합에 대한 긍정적 태도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이해 관련 과목의 지속적인 운영의 중요성을 의미한다(양명희, 임은미, 2004: 219- 220; 권미은, 2017: 160-162). 또 이지수(2005: 171)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태도조사에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장애관련 선행 경험뿐 아니라, 부모나 교사 등 가족, 학교환경의 긍정적 태도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한편 배형일, 오원석, 이윤미(2009: 91-97)의 장애유형에 따른 대학생들의 인식연구는 감각장애가 정신장애, 간질 혹은 에이즈에 비해 훨씬 더 선호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시각과 청각 장애 등 감각장애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없으며, 공중도덕과 같은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이탈행동을 보이지 않는 반면, 정신장애나 에이즈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보편적 경향임을 알 수 있다. 또 장애인의 공적 장소활용에 대해서도 감각장애나 지적 장애인보다는 에이즈나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거의 제한성에 더 강하게 찬성함으로서 이들의 사회적 통합이나 수용 가능성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장애유형에 따른 비장애대학생들의 부정적인 태도는 장애에 대한 실제적, 객관적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할 수 있기에 장애이해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미숙, 양소현(2015: 11-13)의 예비일반교사의 장애인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한 직장에서 장애인과 동료로 일하는 것에는 큰 부담이 없지만,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또 장애관련 경험, 즉 가족, 친구, 지인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나 자원봉사의 경험과 장애 이해 관련 교과목 이수자들은 장애인과의 직장생활, 연애, 결혼 등에 있어서 그렇지 않는 집단에 비하여 사회적 거리감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김정현, 박현옥, 2016: 151; 이신영, 서석진, 한동일, 2019: 40; 이미지, 2020: 368). 여기에서도 장애인과의 사회적 거리감을 좁히고 긍정적 태도 개선을 위해 장애이해교육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통합교육과 행사 등을 통한 장애인과의 의미 있는 경험과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석말숙, 김정미, 유영준(2004: 502-509)의 장애대학생의 사회통합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조사에서 연구대상자들은 공공시설의 이용이 장애인에게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편의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감 조사에서 일시적인 친목회나 사교모임과는 달리 장애인과의 긴밀한 친구 관계나 여행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즉 장애인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관계 형성에 대해서는 거부적인 행동경향을 보였는데, 각종 편의 시설 등 환경적 요인의 수정 등을 통해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사회적 접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김이순, 최경희, 신유선(2004: 254, 264)은 지적장애아에 대한 인식을 알고자 다양한 연구대상자(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주부, 직장인, 중고생, 대학생)를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실시했다. 여기에는 네 가지 인식유형이 있는데, 인권 동등형은 긍정적인 인식으로 장애인도 나와 동등한 인권을 가진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는 입장인 반면에, 나머지 무관심형, 지식 부족형, 배타 편견형은 지적 장애아를 무시, 폄하, 차별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올바른 장애인관 정립을 위하여 아동기부터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경험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일반인, 의료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김금순 외(2010: 19, 20-21)에 의하면, 장애인 집단에 비해 일반인과 의료인들이 장애인을 이질적인 존재로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장애복지서비스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일반인과 의료인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취업지원으로 응답했다.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태도 개선을 위해 의료인의 교육과정 수정, 장애 모의 체험 등 접촉경험의 양적, 질적 증대 등 장애인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것을 주장했다. 고은과 목홍숙(2013: 131, 145-147)의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10대-60대)의 사회적 거리감 연구에서도 장애인들은 부정적, 거부적인 사회적 존재로 인식되어 있다. 특히 지적장애인은 지체나 감각장애보다 사회적 고정관념으로 일상생활, 동료나 친구, 가족관계에서 공감적 이해 정도가 가장 낮았다. 또 차원의 유형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에서도 국가적, 사회적인 관계보다 가족차원, 즉 장애인을 가족으로 수용하는 등 개인적 관계가 가까울수록 거부적인 반응이 더 나타났다.

김용욱, 우정환(2014: 75-79)은 일반교사의 장애인과 통합교육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와 지식의 습득, 장애인과의 접촉 시 거부감, 불안, 긴장 등의 해소를 위한 교사연수 과정이 필요하고, 실제적인 통합학급 담당 경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독일의 크뢰어케스(Cloerkes, 2007: 78, 105)의 연구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전형적인 사회적 반응형태를 ‘응시하고 말하기’, ‘조롱과 놀림’, ‘농담’, ‘차별적인 표현’ 등을 들었다. 특히 인지적, 정신적 영역에서의 장애가 신체적 장애보다, 남자나 나이 든 장애인들이 여성이나 젊은 장애인보다 사회적으로 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또한 주메레더(Sumereder, 2013: 90-93)는 오스트리아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직업적 통합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다. 여기에서 대부분 연구대상자들은 장애인을 무능력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았는데, 장애인과 평소 접촉이 잦은 인사담당자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하여 더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2)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한편 심층면접을 통해 휠체어 장애인 당사자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태도 장벽을 연구한 이정은 외(2020: 161, 180-183)에 따르면, 대부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의 대인관계에서 매우 부정적 정서와 행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과 함께 있거나 관계맺음을 거부하는 행동, 모욕적, 무시하는 언어나 행동, 장애인 권리에 대한 외면, 장애인은 열등하고, 불행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 등의 왜곡된 정서적 요소들이다. 또 휠체어 장애인은 특히 외현적인 장애 특성으로 낙인의 대상이 되어 즉각적인 거부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결함이나 열등함을 가진 존재로 여겨져 평등한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서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되어 차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들에게 원치 않는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온정주의적 차별의 형태이며, 이러한 호의적 차별이나 미묘한 형태의 편견들은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차별적 태도에 속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정책 프로그램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측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장애인 중 자신의 건강상태가 스스로 ‘좋다’고 본 경우는 14.0%인데, 이는 전체 인구의 32.4%에 비해 매우 낮으며, 우울감 경험과 생활에서 스트레스 경험율도 비장애인에 비해 높았다. 또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응답한 장애인 응답자 비율은 36.5%로 2017년 20.1%, 2014년 27.4%에 비해 높지만, 여전히 장애인 당사자들은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http://www.mohw.go.kr>).

최근 들어 장애인에 대한 물리적, 지원서비스 등 외현적 환경은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 본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내면적 태도는 인지적, 감정적, 행동 경향적

요소 측면에서 여전히 무지나 낙인, 편견, 차별, 거부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회적 태도의 저변에는 장애나 장애인을 비정상적으로 여기는 외적 이미지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들을 비생산적, 비효율적 존재로 보거나, 장애인에 대한 지원, 편의를 특별히 보고 이것이 비장애인에겐 오히려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도 있다고 본다(이정은 외, 2020: 180, 182, 183; 박건, 2010: 267). 또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특히 장애인 이해교육의 강화와 장애인과의 상호작용 증진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공통적인 우선 과제로 꼽고 있음도 알 수 있다.

III. 장애인에 대한 기독교계의 태도 개관

1. 성경 속의 장애인 관련 기록을 통해 본 장애인관

성경은 장애에 대해 총 163회 언급하는데, 이는 구약이 약 55%이며, 시각장애(49%), 지체장애(36%), 청각장애(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계윤, 1996: 55-56). 장애 발생 원인의 이해 정도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형성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한다. 오늘날 장애는 선천적(염색체, 유전적 요인 등)보다는 사회 병리적 질환, 사고 등 후천적 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성경 속의 장애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은 시대적 맥락이나 성경 해석상 등 매우 난해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성을 염두에 두고 성경 상 기록된 장애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노인성 장애, 만성질환, 각종 사고나 전쟁, 선천성, 죄의 결과, 귀신들림, 하나님의 섭리 등이다. 그 중에서 특히 장애원인을 죄의 결과나 귀신들림 등으로 보는 종교적 시각은 일반 사회적 관점과는 차이를 보이는 관점이라 할 것이다. 또 이러한 성경 상 기록은 역사적으로 기독교 내적으로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해와 태도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한 요소라 할 것이다.

우선 장애 원인을 하나님께 대한 범죄·불순종의 결과인 징벌로 보는 인과응보적인 사상이다. 이러한 장애 이해는 구약과 신약(출5:1-3, 레26:15-16, 신28:27-29, 삼하3:29, 사16:17-21 등)에 자주 언급되어 있다. 특히 성경에서 종종 장애나 질병의 기적적인 치료들이 주로 죄 사함의 선포 후(막2:3-5, 요5:5-14 등)에 일어나 ‘장애=죄의 결과’라는 공식이 많은 문화권의 의식에 오랫동안 내재된 것 같다(Lena, 2008: 55-57). 이 같은 장애인관은 장애를 죄의 대가, 저주의 상징으로 이해함으로써 오늘날까지도 사회 공동체의 참여에 동등한 일원으로서 수용되지 못하고 혐오나 차별, 거부의 대상(레 21:17-23, 마20:30-34, 막10: 46-52, 눅18:35-43 등)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준 것이다(강영실,

2003: 39).

또한 장애 원인을 귀신들림으로 보는 입장인데, 이는 성경 상 의사소통이나 청각장애(마9:32-33, 막9:17 등), 정신과 질환(막 5:1-20) 등과 관련되어 볼 수 있다. 특히 중세 기독교의 장애인관 중에서는 이들의 일탈행동이나 문제를 사탄의 역사로 곡해하여 마녀사냥으로 수많은 장애인들이 희생되기도 했다.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장애에 대해 의학적인 근거 없는 학대에 가까운 치료법이나 불안감, 거부감 등의 사회적 태도로 인해 심각한 인권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문수, 2009: 52).

이처럼 장애를 단지 죄의 결과, 귀신들림 등의 부정적 장애인관은 결국 교회 및 사회공동체까지 거부, 혐오, 차별, 무시 등의 부정적 태도로 영향력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경의 부정적 이미지로 보이는 장애인 관련 기록도 단순히 편협하고, 문자주의적 해석으로 본질적이며, 핵심적인 의미를 놓친 채 지금까지 그 영향력이 잔존하는 것이다. 이는 당시 문화, 종교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현대사회에서는 신학의 반성적 입장에서 성경적 재해석이 요구된다(김문수, 2009: 51; 박혜전, 김정임, 조영길, 2012: 122; 이은미, 2013: 219-220; 이준우, 2007: 37-39).

이는 사실 성경 속에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 존중 및 평등의 정신을 더 강조하는 많은 기록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장애인을 약자로 보고 사회적 보호와 사랑의 대상(레19:9-10; 신 27:18; 요13:34-35; 눅10:25-37 등)으로 대하라는 명령을 볼 수 있다. 특히 예수께서는 당시 멸시의 대상이던 많은 환자와 장애인에 대한 존중 속에서 행하신 치유 사역(마 8:2-3, 6-16, 25:40 등)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구원의 대상이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마4:23, 11:5; 눅14:12-24 등)함을 기록하고 있다(전지혜, 2014: 256-257). 더군다나 성경에서 장애의 주체를 하나님 자신으로 밝히시며, 이를 통해 그분의 심오한 섭리나 뜻을 밝히기 위한 방법으로 보는 경우(출4:10-11, 요9:1-3 등)인데, 이는 지금까지 부정적 장애이해와는 전혀 다른 인식이라 할 것이다. 이 관점은 종래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거부, 차별 등 부정적인 인식의 대전환을 맞이하는 주요계기가 되었다(강영실, 2003, 39). 그 밖에도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지나친 건강·외모지상주의적 가치관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적 태도에 대한 경고(신1:17; 삼상16:7; 약 2:4; 벰전1:17 등)의 말씀도 관찰 할 수 있다.

2. 기독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관련 선행 연구 고찰

기독교회나 교인들의 장애인 관련 태도를 전체적으로 개관하기 위해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있다. 이에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와 KISS(한국학술정보원)를 바탕으로 '교회의 장애인에 태

도, ‘기독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기독교인의 장애인 인식’ 등을 검색 키워드로 하였다. 특히 2000년 이후의 논문들을 통해 최근 기독교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조망하고자 했다. 검색된 결과물 중 중복 논문을 제외하고,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13편의 논문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연구대상은 주로 일반교인을 비롯하여 교회 장애인 부서 교사, (예비)목회자 및 장애를 가진 교인 등이었다.

(1) 일반 그리스도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먼저 한정우, 장옥례(2018: 201-206)는 장애인들과의 통합예배를 경험한 일반 성도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통합예배 시행 초기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무관심, 동정심, 불편함, 불안함 등 부정적이고 거부적인 정서적, 행동적 태도요소를 보였다. 그러나 점차 신앙적 입장에서 장애인의 존재나 통합예배의 당위성과 의미를 이해하는 긍정적 인식들이 확연히 나타났다. 그리고 통합예배의 개선을 위해서는 통합예배의 본질적 의미 고취와 장애인식 개선교육, 편의시설의 확충(강영실, 2003: 45, 57), 체계적 자원봉사시스템 구축 등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이어서 김용구(2015: 62-67; 천인준, 2009: 67-70)의 교인들의 장애인 수용태도에서도 장애인 시설 봉사 유경험자, 인식개선교육을 받은 경우, 교회 내 장애인 부서 설치된 경우가 그렇지 않는 집단에 비해 수용태도가 더 높았다. 이에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특히 객관적 지식이나 정보 습득 및 긴밀한 상호 작용의 경험이 중요하며, 여기에는 교회의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당 회원(담임목사와 장로)의 의지와 실천(김요섭, 2007: 177)이 필수 요건임을 알 수 있다. 박혜전, 김정임, 조영길(2012: 106-109, 120-122)의 교회 교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수치상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장애교인을 위한 예배부서 설치에 대해 60%는 반대, 약 32%는 찬성하였다. 이 부서의 설치찬성 이유에 ‘예배에 집중’, ‘상호 소통 곤란’, ‘이질감’, ‘불편함’ 등 근본적인 거부감이 매우 강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반면에 반대 이유는 ‘장애인도 나와 같은 동등한 사람’(85%)으로 보기 때문이었다. 특히 동일연구에서 장애인들과의 면담 결과에서 자신들은 교회에서 비장애인들로부터 동등한 인격적 존재로 수용되기보다는 차별적, 이질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만식(2009: 54)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시선은 대부분 동정, 자선적, 시혜적 차원의 구제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또 장애인 선교는 선교적 차원이 아니라 봉사나 자선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어서 김기홍(2017: 57-59)은 장애인 부서 교사의 장애인 인식에서 교사들은 통합예배에 대해 장애인들의 돌발행동이나 교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거부감, 불안감 등 정서적인 이유로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의 개선을 위해 특히 담임목사의 인식 변화를 강조하였다. 윤경일(2017: 58-60; 김요섭, 2007: 169)은 장애인부서 교사들이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이나 부담감 보다는 장애인에 대

한 실제적인 지도 방법 등 태도의 인지적 요소인 객관적 지식이나 정보 결핍으로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요청되었다.

(2) 목회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한편 박희경(2009: 50-52)의 교회학교 통합교육에 대한 목회자들의 인식 조사에서 경력 10년 이하나 50대 이하 연령대 및 교회규모 100명 이하의 목회자들이 그 이상의 집단보다 교회학교의 통합교육 관련 인식과 이를 통한 장애인 선교나 지역사회의 이미지 제고에 더 긍정적, 우호적인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교회의 장애학생 편의시설과 장애인 선교프로그램의 부족은 ‘장애인에 대한 일반성도들의 인식부족’과 ‘교회예산의 부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리고 교회학교 통합교육에 목회자의 역할 인식은 ‘목회자로서의 확신과 기도(영성)’와 통합교육 이해증진과 비전제시를 위한 설교 및 교육’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로서 장애인 사역은 목회자 자신의 올바른 장애인관 정립과 더불어 전체 교회를 대상으로 교육과 계몽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또 김종복(2005)은 우리나라 목회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는 63%가 “약간의 관심이 있다”였고, 그 이유도 “불쌍해서”가 약 80%로 목회현장의 사역자들도 장애인을 단지 동정, 구제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게 보였다. 이는 오영환(2007: 50)의 연구에서도 통합예배 실시에서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목회자의 무관심과 일반 교인들의 장애 이해 부족으로 본 바와도 같다. 이어서 장애인에 대한 신학생의 인식을 살펴본 이천수(2005: 73-77)의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신학생이 그리스도의 활동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사역이 중요했다는 것에 의식적으로는 동의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 관련 설교는 거의 하지 않는 등 그들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적었다. 또 교회의 장애인 선교, 복지를 활성화 하기 위해 담임 목회자의 인식 전환을 1순위로 지적했고, 또 목회자나 목회자 후보생을 위한 장애인 선교 관련 교과목의 개설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안도현, 오세일(2020: 510-518)은 개신교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장애를 신앙과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조사하였다. 먼저 자신의 장애에 대한 종교적 수용과정은 무비판적 수용단계, 성찰적 수용단계 및 주체적 권위회복 단계로 구분하였다. 특히 그들은 교회 내에서 자신들만을 위한 예배모임에 대해 배려보다는 오히려 분리와 차별로의 인식을 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장애인에 대한 기독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관련 선행연구에서의 일관적인 공통점은 여전히 기독교계도 역시 장애인에 대한 무지나 불편(안), 거부감 등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성인 통합예배나 주일학교의 통합교육, 교회 내 편의 시설 확충 등 교회의 장애인 선교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신학자들

의 균형 잡힌 성경해석을 꼽을 수 있다. 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교회(예비)목회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인식의 변화로부터 출발하여 교인들에게 지속적인 강론과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간관의 정립이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IV. 기독교 세계관적 장애인관 정립을 위한 시사점 및 결론

본 연구는 기독교계가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올바른 장애인관을 정립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에 역사적 개관 및 최근 선행연구를 통한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태도와 성경 속의 장애인 관련 기록 및 기독교회와 교인들의 장애인 태도 관련 선행연구를 각각 살펴보았다. 지난 역사 속에서 기독교 사상과 기독교회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천적 과정에서 기여한 바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개관한 바와 같이 기독교계의 장애인에 대한 단편적이고 왜곡된 성경 해석이나 강론 등으로 교회나 교인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무지, 편견, 거부, 혐오 등에 이르기까지 부정적 태도 형성에 일조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바른 장애인관 형성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장애인관을 위해서는 먼저 세상의 가치관과 엄연히 구별되는 확고한 기독교 세계관의 정립이 가장 기초적인 전제라 할 것이다.

세계관은 자연(샤머니즘, 자연주의), 인간(인본주의), 신(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중심적 세계관으로 각각 구분한다. 또 세계관은 세상과 자신을 이해하는 해석적 열쇠 제공 등 여러 기능을 가지므로 올바른 세계관 확립은 특히 중요하다.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요소는 창조(Creation/Form)-타락(Fall/Deform)-구속(Redemption/Reform)-완성(Consummation/Transform)이다. 창조는 만물의 기원을 자연도태나 적자생존의 법칙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은 아름답고 존귀하게 빚으셨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지성의(知情意) 영역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고, 이는 세상 전체에까지 악 영향권에 들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으로 인간과 다른 만물이 원래의 질서대로 회복되어 결국은 인간의 죄로 뒤틀린 세계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의미이다(이승구, 2018: 28-31; 최용준, 2020: 35-39). 이에 기독교·성경적 세계관은 교회나 교인들이 하나님과 자신 및 세상 만물을 바로 이해하고 판단하며 삶 속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고 나침반이며 기준점인 것이다.

둘째, 모든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을 따라 창조된 존엄하며, 각자 다양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인간관이다. 현대 사상의 일반적인 인간이해 방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질적인 요소로 보는 유물론이나 동물적 특성을 강조하는 진화론적 인간관 등이 있다. 역사 속에서 이런 세속적인 인간관은 인간 존재 의미나 가치 여부의 판단은 주로 합리성이나 경제성 관점에서 보았다. 그리고 이런 능력주의적인 사회적 가치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존재 의미나 가치는 대체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의 인간관은 세상 관점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시고, 또 창조과정에서 모든 이들을 상품과 기계처럼 동일하게 만드시지 않고 각자 여러 모양과 특성(마25:14-30; 롬 9:20-22)을 가진 존재로 빚으셨다. 따라서 장애와 비장애를 열등과 우월의 이분법적 이념으로 분리하여 거부나 배척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전지혜, 2014: 254-256).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애인 존중과 사랑의 마음으로 치유와 구원사역을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뜻(출 4:11; 암 3: 6; 요9:2-3; 롬1:27; 고전1:27-31; 히11:33-34 등)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눅14:7-24; 갈3:27-28 등)임을 깨닫는 태도가 요구된다(이준우, 2007: 44).

셋째, 교회 및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감 등 교회와 기독교인의 본질적인 의미를 재인식해야 한다. 현대 사회는 법, 제도, 물리적 환경 등 외적 개선으로 과거에 비해 장애인의 삶이 향상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아직도 사회저변에 팽배한 건강·외모지상주의를 비롯하여 경제성, 합리성 및 생산성 등의 사회적 기대나 가치 기준에 의해 현실적으로 많은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 이런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현대 교회 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박종삼, 2000; 이준우, 2007: 32-34).

원래 교회의 어원은 ‘만남’, ‘모임’을 뜻하는 그리스어 에클레시아(ekklesia)이다. 이 용어는 구약(출12:6(이스라엘 회중), 민14:5(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렘26:17(백성의 온 회중)과 신약에서는 약 117회나 사용되었다(정은배, 2018: 255). 교회나 그리스도인이라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불리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 된 성도(聖徒, 엡 1:22, 5:23)를 가리킨다. 성경에서의 거룩함은 분리되어 구별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회는 세속적 만남과 모임과는 근본적으로 목적과 사명에서 명확한 차별성을 가진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기간 사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과정이요 통로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선교), 각종 질병이나 장애를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행하신 것이었다(정기철, 2017: 97-100).

만일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마 5:13-16)으로의 본연의 사명이나 역할 등 정체성을 상실한 채 세상의 가치관인 성공, 건강, 출세, 물질을 함께 추구한다면, 교회는 세상과의 차별성을 찾을 수 없

는 것이다. 이는 교회나 교인들이 현대의 왜곡된 시대정신을 선도적으로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사회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다. 기독교회는 사회의 연약한 자들을 세속주의자들처럼 분리나 거부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통합 속에서 한 소망을 가진 교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며 함께 살아가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강영실, 2003: 42-43; 전지혜, 2014: 257-260).

넷째,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개선을 위하여 또 다른 근본적인 배경 중 하나는 장애인 관련 성경기록에 대한 신(성경)학자들의 반성적 성경해석(김문수, 2009: 51; 박혜전, 김정임, 조영길, 2012: 101; 이은미, 2013: 233-235)과 이를 바탕으로 한 현장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적 노력(김용구, 2015: 65-67; 박희경, 2009: 52)이다. 그 한 예로, 채은하(2020: 52-54)는 현재 우리나라 교회에서 사용하는 공인번역 성경(표준새번역(1993), 공동개정(1999), 새번역(2001), 성경(2005) 등)이나 주석자들 혹은 설교자들의 장애인 관련 명(호)칭을 보더라도 여전히 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특수교육, 장애인복지에서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눈먼 이’, ‘장님’, ‘귀머거리’, ‘귀먹은 자’, ‘절름발이’, ‘다리 저는 이’, ‘불구자’, ‘병어리’, ‘소경’ 등의 명칭을 기독교계에서는 아직도 사용 중이다. 사실 명칭이란 특정 대상과 현상에 대한 인식구조의 파악과 형성에 중요한 요소인데,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호칭은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사회적 이미지와 차별과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교회의 선교정책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사역을 ‘특수선교’라는 명칭으로 구분하여 구제나 자선의 대상으로만 여김으로서 차별과 편견의 태도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강영실, 2003: 41-42; 이은미, 2013: 227).

게다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교회가 장애인 선교의 당위성에 대해 무관심하고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볼 수 있다. 아마도 이는 일반 사회의 주된 가치관인 경제성의 관점에서 장애인들은 교회의 양적 성장에 방해되고, 또한 소모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전지혜, 2014: 258). 특히 우리나라의 수직적인 교회의 조직 형태 속에서 (담임)목회자 등 교회 지도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교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이들의 장애인 선교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과 실천의지에 따라서 교회 내 장애인부서의 설치에 이어 주일학교의 통합교육과 성인 교인들의 통합예배의 실시여부까지 달려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신학대학교(원)의 목회자 양성과정 초기부터 교육과정에 관련 교과목의 편제를 통하여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장애인관의 정립과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와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그러나 이금섭, 배내운, 이민호(2005: 311)에 의하면, 우리나라 목회자 양성대학 총 79개교 중에서 겨우 6개교(약 7.6%)에만 특수교육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장애인 선교에 대한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현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일반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예를 살펴보면, 비록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2009년부터 유·초·중·고의 모든 예비교사들은 ‘특수교육학개론’이 교직소양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아울러 교육부(2021) 자료에 따르면, 많은 난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일반학교(특수학급+일반학급)에서의 통합비율은 72.2%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인식개선 교육)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더욱 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결론적으로, 기독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보거나 추구하는 가치관이 본질적으로 엄연히 구별되는 존재이다. 이에 인간, 특히 장애인을 보는 관점도 창조-타락-구속-완성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적인 인간관을 바탕으로 정립되고, 또한 회복되어야 한다.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따라 지으신 존귀한 존재이며, 각자 다양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은 사회나 교회 공동체의 동등한 일원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현대 기독교계가 장애인에 대해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신학자들이 확고한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의 성경연구와 해석을 통하여 올바른 인간관으로 정립된 (예비)목회자들을 양성해야 한다. 아울러 현장의 목회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의 본질적인 사명과 역할을 끊임없이 전하고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교회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무성이 있다. 더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장애인 관련 사회 인식의 개선과 국가 정책적 변혁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과 차별적인 시대정신을 이끄는 데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한정우, 장옥례, 2018: 204-206).

사실 특수교육-장애인복지-신학과의 융·복합적인 연구 작업이 선행연구의 부족과 더불어 연구자의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상의 역량적인 한계로 어려움을 실감하는 바이다. 이에 후속 연구로는 성경 상의 장애인 관련 기록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 등을 감안하여 신학자와 특수교육·장애인복지 관련학자 간의 긴밀한 협력적 연구가 요청되는 바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영실 (2003). 한국교회의 장애인편의시설 현황에 관한 기초조사.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 **교회와 사회복지** 1권, 35-63.
- [Kang, Y. S. (2003). A Study on Basic Survey upon Current State of th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within Churches, *Church and Social Welfare*, 1, 35-63]
- 권미은 (2017). '장애아동의 이해' 교과목 수강을 통한 대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변화.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6(1), 145-167.
- [Kwon, M. E. (2017). University students' Changing Attitudes toward Disabilities During Special Education Cours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6(1), 145-167]
- 고은·목홍숙 (2013).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사회적 거리감 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2(4), 127-151.
- [Ko, E. & Mok, H. S. (2013). A Study on Nondisabled People's Sense of Social Distance from the Disabled,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church and Social Welfare*, 52(4), 127-151]
- 교육부 (2021). **2021 특수교육통계**.
[Ministry of Education (2021). *2021 Special Education Statistics*]
- 김금순·박연환·이범석·김정아 (2010). 장애인에 대한 태도, 장애인과의 접촉경험, 장애정책에 대한 인식-일반인, 의료인, 장애인의 비교-. **재활간호학회지**, 13(1). 13-22.
- [Kim, G. S., Park, Y. H., Lee, B. S. & Kim, J. I. (2010). Comparison of the Attitudes Toward and Contact with Disabled Person among Health Care Professionals, Lay Persons, and Disabled Persons.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13(1), 13-22]
- 김기홍 (2017). 교회 내 장애인 부서의 운영 실태와 통합교육에 대한 담당교사들의 인식. **신앙과 학문**, 22(4), 35-67.
- [Kim, K. H. (2017). The Actual Operation Situation of the Disability Department and the Perception of the Homeroom Teachers on Inclusive Education in the Church. *Faith and Scholarship*, 35-67]
- 김기홍 (2020). **장애아동의 이해와 교육**. 서울: 집문당.
[Kim, K. H. (2020). *Understanding and educ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Seoul: Jipmundang]
- 김기홍 (2021). 인간생명의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조명. **신앙과 학문**, 26(2), 113-138.
- [Kim, K. H. (2021). A Christian Worldview Illumination of Self-Determination of Human Life.

-
- Faith and Scholarship*, 26(2), 113-138]
- 김문수 (2009).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교회 장애인 복지 활성화 방안연구. **인권복지연구**, 7, 39-61.
- [Kim, M. S. (2009).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plan for the welfare of the disabled in the church for the improvement of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Human Rights and Welfare Research*, 7, 39-61]
- 김요섭 (2007). 교회장애인 부서 교사들의 의식에 대한 조사. **기독교교육정보**, 16, 157-180.
- [Kim, Y. S. (2007). A Survey on Disability Ministry Department Teachers' Attitudes toward Qualifications, Difficulties and Inclusion.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16, 157-180]
- 김용구 (2015). **기독교인(개신교)의 장애인 수용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남대학교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Kim, Y. G. (2015). *A Study of Christians' Acceptance Attitude toward the Disabl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ocial, Culture & Public Administration & Welfar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nnam University]
- 김용득 (2007). **한국장애인 복지의 이해**. 서울: 인간과 복지.
- [Kim, Y. D. (2007). *Understanding Korean Welfare for the Disabled*. Seoul: Humans and Welfare]
- 김용욱·우정환 (2014). 일반교사의 장애인과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및 관계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5(2), 55-84.
- [Kim, Y. W. & Woo, J. H. (2014). A Study on General Education Teachers' Attitudes and Relationship betwe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Inclusive Education.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5(2), 55-84]
- 김이순·최경희·신유선 (2004). 정신지체아에 대한 인식 유형. **한국모자보건학회지**, 8(2), 251-266.
- [Kim, Y. S., Choi, K. H. & Shin, Y. S. (2004). Analysis on the Attitudes towards the Mental Retarded Children.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8(2), 251-266]
- 김정현·박현옥 (2016).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사회적 거리감 및 태도. **지적장애연구**, 18(4), 129-155.
- [Kim, J. H. & Park, H. O. (2016). The Social Distance and Attitudes of Undergraduate Students toward People with Mental Disorder and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18(4), 129-155]
- 김종복 (2005). **현대사회의 장애인의 현실과 한국교회의 역할**.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2005 대회 발표 자료.

- [Kim, J. B. (2005). *The reality of the disabled in modern society and the role of the korean church*.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05 conference presentation material.]
- 박건 (2010). 차별 이해 지평의 확장을 위한 연구. 인정패러다임을 중심으로 한 비판적 이론 검토. **민주주의와 인권**, 10(1), 255-292.
- [Park, G. (2010). A Study to Expand the Horizon of Understanding Discrimination. A Review of Critical Theories Focusing on the Recognition Paradigm. *Democracy and Human Rights*, 10(1), 255-292]
- 박명우 (2012). **한국 개신교회의 장애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 [Park, M. W. (2012). *A Study on Korean Protestant Churches's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 박종삼 (2000). **교회 사회봉사 이해와 실천**. 서울: 인간과 복지.
- [Park J. S. (2000). *Understanding and practicing church social service*. Seoul: Humans and Welfare]
- 박혜전·김정임·조영길 (2012). 한국 교회의 장애인식 및 장애수용(장애인 편의시설 포함)에 관한 연구. **신앙과 학문**, 17(10), 97-126.
- [Park, H. J., Kim, J. I. & Cho, Y. G. (2012). A Study on the Disability Awareness and Acceptance of disability(include disabled accommodation status) in the Korean Church. *Faith and Scholarship*, 17(10), 97-126]
- 박희경 (2009). **교회학교 통합교육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 [Park, H. K. (2009). *The Perceptions of pastors on Inclusive Education at Church School*.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jor Special Education, Daegu University]
- 배형일·오원석·이윤미 (2009). 장애유형에 따른 대학생의 장애인식 연구. **초등특수교육연구**, 11(1), 83-104.
- [Bae, H. L., Oh, W. S. & Lee, Y. M. (2009). A Study on the Disability Perception of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the Types of Disabilities. *The Journal of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11(1), 83-104]
- 서재복·권정숙·김양자·김태호·손충기·신봉섭·유평수·이석열·이호섭·한상훈 (2016). **교사교육론**. 증보개정판. 태영출판사.
- [Seo, J. B., Kwon, J. S., Kim, Y. J., Kim, T. H., Son, C. G., Shin, B. S., Yoo, P. S., Lee, S. Y., Lee, H. S. & Han, S. H. (2016). *Teacher Education Theory*. Supplementary Edition. Taeyoung Publishing]
- 석말숙·김정미·유영준 (2004). 장애대학생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주민의 인식조사연구.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5(4), 491-513.
- [Suk, M. S., Kim, J. M. & Yoo, Y. J. (2004). Study on Consciousness of Community Residents for Social Integration of Disabled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5(4), 491-513]
- 안도현·오세일 (2020). 종교적 의미에 대한 기독교 장애인 신도의 주체적 수용분석. **사회이론**, 483-530.
- [Ahn, D. H. & Oh, S. I. (2020). Study on Disabled Christians' Subjective Privatization of Religious Meanings. *Korean Journal of Social Theory*, 483-530]
- 양명희·임은미 (2004). '현대사회와 장애인의 이해' 과목 수강이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5(3), 203-223.
- [Yang, M. H. & Lim, E. M. (2004). The effect of taking the 'Contemporary Society and Understanding of the Disabled' course on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5(3), 203-223]
- 오영환 (2007). **장애인의 통합예배 참여에 대한 일반 기독교인의 인식**.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Oh, Y. H. (2007). *The Recognition of the Non-Handicapped Christians on Unified Worship with the Handicapp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Daegu University]
- 윤경일 (2017). **교회 장애인부 주일학교 교사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태도 연구**. 석사학위 논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재활복지학 전공.
- [Yoon, K. I. (2017). *Study on Attitude of Sunday School Teacher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Rehabilitation and Welfare, Major in Rehabilitation Welfare, Nazarene University]
- 이계윤 (1996). **장애인선교의 이론과 실제**. 경기도: 한국특수교육연구소 출판부.
- [Lee, G. Y. (1996). *Theory and Practice of Missionary for the Disabled*. Gyeonggido: Korea Special Nursing Research Institute Publishing Department.]
- 이금석·배내운·이민호 (2005). 목회자 양성 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 조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4), 297-313.
- [Lee, G. S., Bae, N. Y. & Lee, M. H. (2005). A Study on Investigation of Special Education-Related Subjects in Theological University Curriculum.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6(4), 297-313]
- 이만식 (2009). 성경적 관점에서 본 장애인과 장애인을 향한 선한 행위의 진정한 의미.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교육교회** 377권, 52-57
- [Lee, M. S. (2009). The true meaning of good deeds towards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people

- with disabilities from a biblical perspectiv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Christian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Education Church*, 377, 52-57]
- 이미숙·양소현 (2015). 예비일반교사의 장애인과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태도. *교사교육연구*, 54(1), 1-16.
- [Lee, M. S. & Yang, S. H. (2015). An Analysis of Attitudes of Students in the College of Education Regarding Social Relationships with People with Disabilities, *Teacher Education Research*, 54(1), 1-16]
- 이미지 (2020). 예비교사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통합교육, 관련교과목 수강 경험의 조절효과. *교사교육연구*, 59(3), 357-370.
- [Lee, M. J. (2020). Prospective Teachers'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on Multi-Cultural Acceptance: Moderating Effects of Experience of Inclusive Education and Related Course, *Teacher Education Research*, 59(3), 357-370]
- 이선우 (2009). **장애인 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 집문당.
- [Lee, S. W. (2009). *Theory and practice of welfare for the disabled*. Seoul: Jipmundang]
- 이승구 (2018).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서울: SFC 출판부.
- [Lee, S. G. (2018). *What is a Christian Worldview?* Seoul: SFC]
- 이신영·서석진·한동일 (2019).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8(1), 27-47.
- [Lee, S. Y., Seo, S. J. & Han, D. I. (2019).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Disabled Persons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8(1), 27-47]
- 이은미 (2013). 장애인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연구. *신학과 선교* 42, 215-246.
- [Lee, E. M. (2013). A Study on Issues and Direction of Christian Approaches to People with Disability. *Theology and Mission* 42, 215-246]
- 이정은·최보라·조미형·이인선·신형익 (2020).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태도장벽. *보건사회연구*, 40(2), 151-192.
- [Lee, J. E., Choi, B. R., Cho, M. Y., Lee, I. S. & Shin, H. I. (2020). Attitudinal Barriers in interpersonal Relations Encountered by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0(2), 151-192]
- 이준우 (2007). 성서적 관점에서 본 장애인 문제의 본질과 교회의 역할. *교회사회사업*, 5, 31-56.
- [Lee, J. W. (2007). Handicap and the Biblical View of the Role of the Church, *Church Social Work*, 5, 31-56]
- 이지수 (2005). 우리나라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관련요인 연구. *사회복지연구*, 26, 151-176.
- [Lee, J. S. (2005). A Study on Attitudes toward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26, 151-176]

- 이천수 (2005). **장애인에 대한 신학생의 윤리의식 조사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기독교 윤리 전공.
- [Lee, C. S. (2005). *Research into Theological Students' Moral Consciousness toward the Differently Aabled Person*. Master's Thesis. The United Graduate School of Theology, Major Christian Ethics, Yonsei University]
- 이희철 (2009). 장애인 선교의 단계별 사역방안. **월간고신** 4월호.
- [Lee, H. C. (2009). Step-by-step ministry plan for the disabled person mission. *Monthly Koshin*, 4th. Monthly]
- 전광식 (1998). **학문의 숲길을 걷는 기쁨**. 서울: 도서출판 CUP.
- [Jeon, K. S. (1998). *The joy of walking through the forest of learning*. Seoul: CUP]
- 전지혜 (2014). 장애학적 관점에서의 사회변화와 한국 장애인 선교의 방향. **선교와 신학**, 34, 239-267.
- [Jeon, J. H. (2014). The Social Changes from Disability Studies Perspective and the Mission toward Koreans with Disabilities. *Mission & Theology*, 34, 239-267]
- 정기철 (2017).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예수**. 서울: 쿰란출판사.
- [Jeong, G. C. (2017). *Jesus teaches, preaches, and heals*. Seoul: Qumran Publishing House.]
- 정은배 (2018). 이슬람 공동체 '움마'와 기독교 공동체 '교회'의 정체성 연구. **복음과 선교**, 41, 233-286.
- [Jung, E. B. (2018). A Study on Identity of Islamic Community 'Ummah' and Christian Community 'The Church', *Gospel & Mission*, 41, 233-286]
- 천인준 (2009). 천주교 장애인부 활동에 따른 일반신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비교.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3(1), 45-71.
- [Chun, I. J. (2009). Comparing Different Views on Disabled by Catholics due to Presence of Sunday Schools for Disabled.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 Governance*, 3(1), 45-71]
- 채은하 (2020). 부적절한 장애인 호칭들의 문제와 대안. **장신논단**, 52(2), 37-59.
- [Chai, U. H. (2020). A Study on the Inappropriate Naming of People with Disabilities(PWD) and their Alternatives.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52(2), 37-59]
- 최용준 (2020). **성경적 세계관 강의**. 서울: 도서출판 CUP.
- [Choi, Y. J. (2020). *A Biblical Worldview Lecture*. Seoul: Publishing CUP]
- 한국심리학회 편 (2006). **현대심리학의 이해**. 학문사.
-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6). *Understanding of Modern Psychology*. Hagmunsa.]
- 한정우·장옥례 (2018).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인의 지역사회 통합예배에 대한 비장애성도들의 인식. **신학과 사회**, 32(2), 169-210.
- [Han, J. W. & Jang, O. R. (2018). A Study of Fellow Church Members' Perceptions of Inclusive

- Worship with the Disabled. *Theology and Society*, 32(2), 169-210.]
- Beckerath, J. (1975). *Amenemope*. In: Wolfgang H.(Hrsg.): Lexikon der Ägyptologie. Band I, Wiesbaden: Harrassowitz.
- [Beckerath, J. (1975). *Amenemope*. In: Wolfgang, H.(Ed.): Lexicon of Egyptology. Volume I, Wiesbaden: Harrassowitz]
- Benzenhoefer, U. (1998). "Das Recht auf den Tod". Bemerkungen zu einer Schrift von Adolf Jost aus dem Jahre 1895. In: *Recht & Psychiatrie* 16, 198-201.
- [Benzenhoefer, U. (1998). "The right to death". Comments on a paper by Adolf Jost from 1895. In: *Law & Psychiatry* 16, 198-201]
- Benzenhoefer, U. (2009). *Der gute Tod? Geschichte der Euthanasie und Sterbehilfe*. 2. Auflage. Vandenhoeck & Ruprecht.
- [Benzenhoefer, U. (2009). *The good death? History of euthanasia and euthanasia*. 2nd Edition. Vandenhoeck & Ruprecht]
- Cloerkes, G. (2007). *Soziologie der Behinderten*. Eine Einfuehrung. Winter.
- [Cloerkes, G. (2007). *Sociology of the Disabled*. An Introduction. Winter]
- Fischer, L. & Wiswede, G. (2002). *Grundlagen der Sozialpsychologie. 2. ueberarbeitete und erweiterte Auflage*. Muenchen, Wien: R. Oldenbourg Verlag.
- [Fischer, L. & Wiswede, G. (2002). *Basics of social psychology. 2nd re-vised and enlarged edition*. R. Oldenbourg Publishing]
- Lane, H. (1988). *Mit der Seele hören. Die Geschichte der Taubheit*. München, Wien: Carl Hanser Verlag.
- [Lane, H. (1988). *Hear with the soul. The story of deafness*. Munich, Vienna: Carl Hanser Publishing]
- Lena, K. (2008). *Die Stellung behinderter Menschen im mittelalterlichen Europa*. München: GRIN Verlag.
- [Lena, K. (2008). *The position of disabled people in medieval Europe*. Munich: GRIN Publishing]
- Maeser, S. (2008). *Peter Singers "praktische Ethik"-Die neue Euthanasie- und Eugenik-Debatte. Diplomarbeit*. Fakultät fuer Bildungswissenschaften der Leopold-Franzens-Universität Innsbruck.
- [Maeser, S. (2008). *Peter Singer's "Practical Ethics" - The New Euthanasia and Eugenics Debate. Thesis*. Faculty for Educational Sciences at the Leopold-Franzens-University Inns-

bruck]

Mattner, D. (2000). *Behinderte Menschen in der Gesellschaft-Zwischen Ausgrenzung und Integration*. Stuttgart: Kohlhammer.

[Mattner, D. (2000). *Disabled people in society-between exclusion and integration*. Stuttgart: Kohlhammer]

Sierck, U. (2017). *Widerspenstig, eigensinnig, unbequem. Die unbekannte Geschichte behinderter Menschen*. Weinheim, Basel: Beltz Verlag.

[Sierck, U. (2017). *Unruly, stubborn, uncomfortable. The unknown story of disabled people*. Weinheim, Basel: Beltz Publishing]

Sumereder, A. (2013). *Einstellung zur beruflichen Integration von Menschen mit einer intellektuellen Behinderung-Die oesterreichische Situation*. Diplomarbeit. Universitaet Wien

[Sumereder, A. (2013). *Attitude to the occupational integration of people with an intellectual handicap-the Austrian situation*. Thesis. University of Vienna]

뉴스핌. 익산 중증장애인 시설 홍주원 “장애인 거주·이전 자유 보장하라” (2021.7.19.)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719000570>(2021.7.20.)

[newspim.HongJooWon, a facility for the severely disabled in Iksan, “Guarantee freedom of residence and relocation”(2021.7.19.)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719000570>(2021.7.20.)]

다음백과 루키즘.<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d1325>(2021.12. 25.)

[Daum Encyclopedia Rookism.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d1325>(2021.12.2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4.20.).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5357(2021.9.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ess Release (2021.4.20.).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5357(2021.9.2.)]

중앙일보. (2017.9.7). “제발 학교 짓게 해 주세요” 무릎 꿇은 장애 아동 부모 모욕한 강서구 주민들“. <https://news.joins.com/article/21915919>(2021.07.28.)

[JoongAng Ilbo. (2017.9.7). “Please let me build a school” Gangseo-gu residents insulting parents of disabled children on their knees”.<https://news.joins.com/article/21915919>(2021.07.28.)]

머니투데이, “너무 아프다”...그들이 스위스로 간 이유는 ‘조력자살’ 때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02610141936111&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2021.12.25.)

[Money Today, “It hurts so much”...The reason they went to Switzerland was because of ‘assisted suicide’.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_102610141936111&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2021.12.25.\)](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_102610141936111&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2021.12.25.))]

SPD (사민당). (2019.5.2.). Europäischer Protesttag zur Gleichstellung von Menschen mit Behinderung|Mast: “Inklusion beginnt in den Köpfen”. [https://www.spdgen-genbach.de/meldungen/122037-europaeischer-protesttag-zur-gleichstellung-von-menschen-mit-behinderung-mast-inklusion-beginnt-in-den-koepfen/\(2021.8.19.\)](https://www.spdgen-genbach.de/meldungen/122037-europaeischer-protesttag-zur-gleichstellung-von-menschen-mit-behinderung-mast-inklusion-beginnt-in-den-koepfen/(2021.8.19.)).

[SPD). (2019.5.2.). European day of protest on equal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Mast: “Inclusion begins in the mind”. [https://www.spdgen-genbach.de/meldung/122037-european-protest-day-for-equality-of-people-with-disabilities-mast-inclusion-begins-in-the-heads\(2021.8.19.\)](https://www.spdgen-genbach.de/meldung/122037-european-protest-day-for-equality-of-people-with-disabilities-mast-inclusion-begins-in-the-heads(2021.8.19.))]

CBM Christoffel Blindenmission. [https://www.cbmswiss.ch/de/was-wir-tun/fakten-und-hintergruende/ueberblick-behinderung-und-cbm-hilfe-weltweit.html\(2021.9.1.\)](https://www.cbmswiss.ch/de/was-wir-tun/fakten-und-hintergruende/ueberblick-behinderung-und-cbm-hilfe-weltweit.html(2021.9.1.))

[CBM Christoffel Mission for the Blind. [https://www.cbmswiss.ch/de/was-wir-tun/facts-and-backgrounds/overview-disability-and-cbm-help-worldwide.html\(2021.9.1.\)](https://www.cbmswiss.ch/de/was-wir-tun/facts-and-backgrounds/overview-disability-and-cbm-help-worldwide.html(2021.9.1.))]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기독교 세계관적 차별성 탐색

A Study on Christian Worldview's Differentiation in the Attitude to the Disabled

김기흥 (부산교육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창조-타락-구속-완성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올바른 장애인관을 정립하기 위한 주요 시사점을 찾는 데 있다. 이에 먼저 역사의 개관과 최근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적 태도를 알아본다. 이어서 성경 속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고, 또 선행연구를 통하여 기독교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고찰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독교 세계관적 장애인관을 정립하기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분명히 구분되는 확고한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해야 한다. 둘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엄한 존재이다. 셋째, 교회 및 기독교인의 본질적인 정체성과 사명감을 재인식해야 한다. 넷째, 신학자와 목회자들의 반성적 성경해석이나 강론 등 적극적인 개선 의지와 실천노력이 중요한 기초이다.

주제어 : 기독교 세계관, 장애인, 성경, 태도, 교회